

Overview of Sports Medicine



하 권 익 (서울보훈병원 병원장 MD,PhD)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1963)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의학석사 (1970)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의학박사 (1974)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인턴, 레지던트 수료(1972)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
서울보훈병원 병원장(2002. 11 -)
서울대학교병원 이사(2003. 3 ~ 2006. 3)
충남대학교병원 이사(2003. 3 ~ 2006. 3)

건강한 삶은 인생의 목표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은 스포츠이다. 따라서 전 세계가 "sports for all"의 시대라고 표현한다.

효율적인 스포츠를 위해서는 엘리트 선수나 일반인들에게 스포츠 의학에 대한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를 통한 건강관리, 질병예방의 수단으로 의학뿐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나 스포츠 의학은 간여되지 않은 곳이 없다.

2002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 스포츠 의학연맹 학술대회에서의 주제가 "Sports medicine for all" 이었던 까닭도 그 이유에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대한스포츠의학회가 창립된 이래 88서울올림픽을 거치며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높아졌다.

스포츠 의학의 미래는 무한 가능성이다.

스포츠산업이 21C의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이어지는 스포츠 의학의 필요성도 비례하여 커지고 있다.

행정적으로 그리고 과학 기술적으로 변모하는 발전의 속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고 다양하다.

스포츠 의학의 미래를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며 아울러 치과분야의 올림픽에서의 역할과 스포츠 외상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